

서울시민 “서부선 조속 착공” 온라인 시정참여 목소리 높여

‘상상대로 서울’로 공감 제안
용산공원 접근성 확대 등 주문

서울시민들이 서부선 조속 착공, 용산공원 접근성 확대, 서울기록원 콘텐츠 보강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22일 서울시의 온라인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따르면, 서부선 착공을 서둘러달라는 민원은 지난 8일부터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118명의 호응을 끌어내 이달의 최대 공감 제안으로 뽑혔다.

현재 시는 은평구 새철역(6호선)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총 16km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지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산공원 임시 개방 부지인 캠프 서빙고의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홍모 씨의 제안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22일 오후 1시30분까지 시민 104명의 지지를 받았다.

홍씨는 “용산공원 캠프 서빙고는 주차장이 있지만 장애인 외에는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도보로 접근해 이용하게 된다”면서 “시설이 좋은 데 비해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측 한강중학교 쪽에 개방되지 않은 출입구를 열어주면 서빙고동, 보광동 지역 주민과 대중교통을 이용해 녹사평대로 쪽에서 오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산공원 정식 개장에 앞서 임시로 개방하고 있는 장교속소 5단지(캠프 서빙고)는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관리를 위해 동시간 이용객을 500명으로 제한하고 문 여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시는 “출입구 확대에 따른 시설물 리모델링, 인력 추가 배치 등 운영·관

리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장교속소 5단지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서울기록원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달라는 제안은 올 4월25일부터 현재까지 시민 56명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서울기록원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서울시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을 보관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청원자 석모 씨는 “정지된 시각자료 형태보다는 장소의 정취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면 관람객들이 전시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움직이는 시각자료에 익숙한 시대인 만큼 동영상 상영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올 하반기 2층 전시를 개편할 계획으로 디지털과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개편 후에는 전시실 내 체험 코너가 보다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틈틈체육 프로젝트’ 200여개교 300만원씩 지원

복도 끝, 건물 사이 틈새 공간서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운동

서울 학교 내 복도 끝, 건물 사이 틈새 공간에 학생들이 운동할 공간이 마련된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등교 후 수업 전 등 자투리 시간에 해당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5월부터 12월까지 ‘틈틈체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내 200여개 학교를 선발해 각 300만원을 지원한다.

‘틈틈체육 프로젝트’는 학교 복도 끝, 건물 사이, 운동장 모서리 등 틈새 공간을 신체활동 공간으로 마련해 아침, 점심, 쉬는시간, 방과후 등 틈새 시간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로 가는 디딤돌 학기에 학생들의 체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 건강 및 체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100여곳 90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건강검진 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위축이 지속되면서 서울 학생들의 과체중 및 비만 비



서울 동작구 본동초등학교에서 열린 ‘본동놀이 한마당’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슈퍼볼 나르기를 하고 있다. /뉴스1

율이 2019년 26.7%에서 2021년 32.1%로 높아졌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생 건강체력평가에서는 저체력에 해당하는 4·5등급이 13.9%로 코로나19 전인 2018년 9.3%보다 4.6%p 증가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교 안의 안전한 실내·외 자투리 공간을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초·중·고 200개교를 선정해 공간 구축비로 학교당 300여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에서는 복도에 운동기구(탁구대, 다트 등)를 놓거나 운동장, 건물 코너 등 틈새 공간에 농구골대, 철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벽면이나 바닥을 활용해 체력운동, 신체놀이 공간 등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교통공사, 공항 ‘캐리어 배송서비스’

양방향 지하철↔공항 수하물 배송

서울교통공사는 22일부터 인천·김포공항과 지하철역 간 수하물을 당일 배송해주는 ‘양방향 캐리어 배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자는 출근길 지하철역에 맡긴 캐리어를 퇴근 후 공항에서 찾아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다. 또 저녁에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호텔에서 체크아웃한 후 인근 지하철역에 캐리어를 맡기고 남은 일정을 보낸 뒤 공항에서 짐을 찾아가면 된다.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신청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이용 하루 전 티러기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위치한 한진택배영업소와 서울역, 홍대입구역, 명동역, 김포공항역에 설치된 티러기지에서 가능하다. 캐리어 인수 및 인계장소는 공항 한진택배영업소와 4개역 티러기지로 동일하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캐리어 사이즈와 배송 권역, 이용 시기(주중·주말)에 따라 다르며,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4만5000원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hjk1@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 /경기도

경기도 카자흐 의료기기전시회 710만 달러 수출상담

경기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2023 카자흐스탄 의료기기전시회(Kazakhstan International Healthcare Exhibition)’에 경기도 의료산업체 공동관을 구성하고 60건, 7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공동관을 구성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 경기도 기업은 ㈜셀스헬스케어, ㈜미코바이오메드, ㈜에이스메디칼, ㈜제니스티, ㈜케어포유 등 5곳이다. 전시회를 찾은 중앙아시아 국가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제품 설명과 구매 의향 등을 타진했다.

/경기·유진체 기자 yujin@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가족·창업 공간 탈바꿈

서울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가 가족 여가 공간을 품은 청년 창업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의 전략거점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서울북부지검과 북부지법이 도봉구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

사)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부지(1만 3209.7㎡)이다. 부지 매입 가격은 970억원이며, 오는 2026년 서울시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릉동 옛 북부법조단지 일대는 태릉입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블록 내부 입지로 접근성 미흡, 한정된 시설 이용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창문 적용가능 투명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국민대, 임상규·홍다정 교수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제)는 임상규 응용화학부 교수와 홍다정 교양대학교수가 창문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뛰어난 가시광 투과도를 가진 투명 에너지저장 슈퍼커패시터(supercapacitor)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투명 에너지저장 장치는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건물의 창문 등

과 같은 투명한 구조물 표면에 적용해, 그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도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국민대 연구팀은 높은 전기전도성을 가진 투명한 산화주석 나노입자를 기존 전극 재료와 함께 증착함으로써, 효과적인 전자 전달을 이용한 정전용량 향상과 투명도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23일(화) 음력: 4월 4일

수도권 날씨 15~2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0/27, 동두천 11/27, 가평 10/26, 파주 11/26, 서울 15/27, 양평 12/26, 인천 15/23, 수원 15/25, 용인 15/25, 평택 12/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한국의 룬 대통령”... 바이든 G7 기자회견서 또 말실수
▲일본, G7에 대한 중국 항의 일축... “책임있는 행동 해야” /사진 뉴스1

▲바이든, 독자적 부채한도 인상 안 할 듯... “시간 촉박”
▲기사다 日총리 지지율 56%... 8개월 만에 50%대 회복



▲“병원서 마스크 안써도 됩니다”... 美, 의무화 종료 확산
▲“빌 게이츠, 성범죄 애플스타인에 ‘불륜 폭로’ 협박 받아” /사진 뉴스1